

해양레저의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이 중 열**

김 수 훈***

< 목 次 >

I. 서 론

III. 해양레저 활동의 가설검증 및 분석

II. 해양레저활동의 개념 정의 및 의의

IV. 결론

< 요 약 >

우리나라의 해양레저와 관련된 정책, 행정제도 및 법제 및 이용실태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함과 더불어 해양레저의 효율적 관리 방향은 어떠한 것인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해양레저 시설이용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 일련의 가설을 세우고 이에 대한 검증의 과정을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도출된 해양레저 활동의 개선방안들과 시설이용활성화의 가설적 관계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시설이용 활성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프로그램의 강화, 안전성 강화, 장비시설의 강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행정서비스 강화와 해양레저 콘텐츠 강화는 시설이용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시설이용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설이용 활성화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프로그램 강화가 안전성 강화, 전문인력 양성, 장비시설의 강화에 비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정보습득의 용이성,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 재정지원 강화, 법령의 정비 변인의 경우에는 시설이용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해양레저, 시설이용, 해양관광, 해양서비스】

* 본 연구는 공동저자 김수훈의 박사 학위논문인 “해양레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축약하고 발전시킨 논문임을 밝힙니다.

**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jylee@incheon.ac.kr)

*** 전 해양경찰청 치안감(soohoon9595@hanmail.net)

논문접수일(2010.9.2), 게재확정일(2010.9.30)

I. 서론

현대의 바다는 해운, 수산의 공간을 넘어 건전한 여가활동의 공간이며, 레저산업의 측면에서 여러모로 활용 가능성이 존재하는 무한한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러한 바다의 특성을 고려할 때 21세기 해양레저 관련 산업의 잠재적 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해양레저 관련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파생되는 행정수요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휴식 및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변화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데, 사회·문화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에 의한 국민 개개인의 휴양·레저에 대한 욕구증대는 여가를 보다 보람 있고 창조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양레저활동 인구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으며, 해양레저활동은 자연친화적인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 해양레저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보아, 여가관련 시장규모와 스포츠 산업과 동반하여 성장하고, 외국 관광객의 해양레저시설 이용도의 증가, 레저 인구의 장기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방 분권화가 가속화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고용창출, 소득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생활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해양관광산업을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 5일 근무제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관광행태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가족 단위의 여가활동 및 여행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그에 따라 장기체류형 관광패턴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레저시설에 대한 소비욕구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가족 단위 여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양레저 시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양레저산업 분야는 아직도 대중화가 되어 있지 못하고 학문적으로 체계적인 연구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그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해양레저의 수요 급증은 자연스럽게 해양레저에 관한 행정수요 증가를 유발시키고 있으며, 행정 집행적 측면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 국민 만족도의 향상, 행정제도 및 법제의 정비 등을 내포하는 해양레저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한국은 아직 해양레저 기반시설의 부족, 여가 문화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해양레저와 관련된 정책, 행정제도 및 법제 및 이용실태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함과 더불어 해양레저의 효율적 관리 방향은 어떠한 것인가를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시설이용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

해 일련의 가설을 세우고 이에 대한 검증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도출된 해양레저 활동의 개선방안들과 시설이용활성화의 가설적 관계들을 검토한다.

II. 해양레저활동의 개념 정의 및 의의

1. 해양레저 활동의 개념 및 특징

해양레저 활동이라 함은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이루어지는 레저활동 중에서 공간적으로는 해역과 연안에 접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양공간에 의존하거나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모든 레저활동을 말한다. 해양레저는 해양의존형과 해양연관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양의존형은 일반적으로 그 활동 유형에 따라 스포츠형, 휴식형, 관광형(탐방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1〉 해양레저활동의 종류

해양의존형	스포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딩(서핑, 워드서핑) - 요트, 보트(세일링 요트, 카누, 제트스키, 모터보트 등) - 다이빙(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등) - 고무보트, 패러세일링, 수상스키, 수상오토바이 등
	휴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욕(바다수영, 물놀이, 일광욕 등) - 조간대 수렵(조개잡이 등 해변 동식물 채취) - 바다낚시(해안낚시, 암벽낚시 등)
	관광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유람(관광유람선, 여객선 등) - 해중경관관람(관광잠수정, 해중전망대 등)
해양연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치스포츠, 모래놀이, 해변레크리에이션 활동 등 - 해안경관조망, 산책, 조깅 등 - 해양문화탐방(해양생물관찰, 문화재 답사 등)

자료: 이수호(2001).

스포츠형은 다소 역동적인 유형으로서 보트, 모터보트, 수상스키, 수상오토바이, 워드서핑, 서핑,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등이 이에 속한다. 휴식형은 주로 바닷가를 중심으로 하는 휴식과 레저를 겸하는 것으로 해수욕, 조개잡이 등 해변 동식물 채취 행위 및 바다낚시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관광형은 유람선과 여객선 등을 이용한 해상 유람과 관광잠수정 및 해중 전망대 같은 해중경관관람 등이다. 해양연관형은 비치스포츠, 모래놀이, 해변 레크리에이

선 활동과 해양경관조망, 해양문화탐방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해양관광(marine tourism)이란 해안선에 인접한 육지와 바다의 공간에서 해양 레크리에이션 행위를 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해안지역(coastal zone)이란 육지와 바다, 그리고 대기가 만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대를 말한다. 따라서 이 해안지대에는 해안선에 인접한 육지와 바다가 포함된다. 해양관광은 관광객들이 연안과 해안지역에서 관광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활체험, 교육, 경관 감상, 해상·해중에서 체험활동, 심신을 휴식할 수 있는 휴양레크리에이션활동으로서 관광객들이 목적지에서 적극적인 관광행위를 수행하는 정·동적인 관광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해양관광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해양관광의 특징

구분	부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
자연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에 민감 · 친수성 위주 · 접근성이 불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화의 가능성이 무한함 · 육상관광자원과 연계 가능
법과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약이 강함 · 복합적인 행정기관 관여 · 관련법규 제정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OK21 계획수립, 추진
자원/상품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이 많이 소요 · 산업활동(기반시설)위주 · 해수욕장 위주 · 관련기관 이해관계 상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관 등의 조성이 활발함 · 관련축제의 활성화되지 않음 · 먹을거리, 쇼핑상품 개발용이 · 체험과 교육의 병행 가능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오염에 민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생물의 가치극대화 가능 · 환경 교육프로그램 개발용이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관광시 어업권 침해 · 심리적인 불안감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특화상품 개발 가능 ·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가능 · 지역의 대안 소득원 기능수행

자료: 이상춘·여호근·최나리(2004: 25).

해양관광의 유형에 관한 연구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태양(1995)은 해양관광의 범위를 해안중심으로 표현하면서 해수욕·보우팅·수상스키·스킨다이빙·낚시·해상·수중탐사 등 다양한 해안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활동이라 하였다. 이종훈(1999년)은 해양관광의 유형은 단순히 경관감상 및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휴식형 활동과 활동성이 대단히 강한 윈드서핑·다이빙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며, 해양의존형 해양관광은 활동성에 따라 스포츠형(서핑·보트·요트·다이빙 등), 휴양형(해수욕·낚시 등), 유람형(크루징)으로 유형이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해양관광형

관광형태로는 수족관 및 해양박물관 관람, 해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게임, 일광욕, 산책, 사이클링, 수산물시장 쇼핑 등과 같이 다양한 활동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표 3〉 해양관광의 활동유형

구분 연구자	해양관광의 활동유형
이태우 (1996)	스포츠형, 레저형, 관광형
한국해운신문 (1998)	해양 스포츠형, 전통적 레저형, 외항 크루즈
최도석 (1998)	스포츠형, 해양관람 및 유람형
이종훈 (1999)	스포츠형, 휴양형, 유람형
이상춘·여호근 (2001)	경관감상형, 수상스포츠형, 해양축제구형, 미식추구형, 지식추구형, 승선/유람형, 친수놀이형 해변기구놀이형, 해변스포츠형

자료: 이상춘·여호근·최나리(2004: 27).

막스(Marks, 1999)는 해양관광을 활동형 해양관광(activity-based marine tourism), 자연형 해양관광(nature-based marine tourism), 사회·문화형 해양관광(social and cultural attractions), 특정 이벤트형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¹⁾ 이상춘 등(2004년)은, 해양관광을 그 활동 유형에 따라 해양의존형 활동과 해양 연관형 활동으로 분류되며, 해양의존형 활동은 역동성에 따라 스포츠형, 휴양형, 유람형 등으로 분류하고, 스포츠형 관광이란 서핑, 윈드서핑, 요트 및 보트, 동력요트, 제트스키와 해양다이빙과 같이 해안이나 바다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이고, 휴양형 관광은 해수욕과 조간대 어업, 바다낚시, 경관 감상, 해양문화관광 등이 있다. 유람형 관광으로는 크루즈 관광과 해중 유람이 있다고 한다. 기타 연구에서는 해양관광의 유형을 해양 스포츠형(요트, 모터보트, 윈드서핑, 서핑, 보트 세일링, 레저다이빙), 전통적 해양 레저(해수욕, 낚시, 간조시기에 어패류 채취), 크루즈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1) 첫째, 서핑, 윈드서핑, 낚시, 스쿠버다이빙, 수상스키 등의 수상 레저류, 항해, 해수욕 등인 활동형 해양관광이다. 둘째, 자연경관 감상, 갯벌생태체험, 조개잡이 등에 속하는 자연형 해양관광이다. 셋째, 전통축제, 지역축제(풍어제·머드축제·대하축제 등), 어촌민속전시관, 어촌역사유적박물관 등의 사회·문화형 해양관광이다. 마지막으로 바다낚시대회, 윈드서핑대회, 요트대회 등의 특정 이벤트형 해양관광이다.

2. 해양레저활동의 다양화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해양레저활동에서 가운데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형태가 바로 바다낚시인데, 낚시행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스포츠낚시와 레저낚시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현재 국내 낚시인구는 약 350만 명에서 570만 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유료낚시터를 중심으로 하는 낚시형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2004년 말 현재 국내에서 해면 유어장으로 지정된 곳은 총 46개소의 979ha에 달하며, 이 가운데 유료낚시터는 총 21개소로 545ha가 지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해양수산부, 2005: 18).

한편, 해양레저활동에서 갯벌체험은 해양자원을 관광화하기 위한 주요 아이템의 하나로 과거 10여 년 전부터 매우 인기 있는 테마가 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갯벌을 이용한 각종 체험프로그램이 더욱 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2004년 전국 갯벌체험행사는 55회로 참여인원이 약 4만(36,596명) 명이었는데 이것이 2005년에 와서는 10월 말까지 153회로 이상이 증가하고 참여인원도 6천여 명이 늘어난 45,983명으로 집계되었다(해양수산부, 2005: 21~22). 국내에서 갯벌체험이 가능한 지역은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에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어촌체험마을로 이미 지정된 곳과 지자체 등에서 체험어장으로 지정해 운영 중인 곳이 있다.

다음으로, 체험어업형 해양레저활동을 들 수 있다. 체험어업형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각 지역별로 이를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예컨대 강원도 고성군 손뽕치잡이, 전라북도 고창군의 풍천장어 잡이, 부산 기장군 공수말의 지인망 행사, 강서 대항마을의 송어잡이, 전라남도 장흥군의 개메기 축제 등에서 실제적으로 체험어업형 해양레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체험어업형 해양레저활동은 어떠한 활동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양식체험, 어선승선 및 조업체험, 전통어업 체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중체험형 해양레저활동을 들 수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해양레저활동의 하나는 수중체험형으로, 이 가운데 동호회를 중심으로 하는 스킨스쿠버가 가장 발전해 있다. 그 외에 현재 국내에서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씨워킹이나 스노클링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레포츠피싱 유형도 등장하고 있다(해양수산부, 2005: 28).

해양레저기구는 매년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거나 신제품이 출현하고 있으나 그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나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라 수상레저안전법 등의 제·개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해양레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경향이 자극적·모험적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수상레저기구도 속도와 긴장감을 훨씬 크게 느낄 수 있는 형태로

변형되고 있다. 서핑(Surfing)과 윈드서핑(Wind Surfing)은 오랜 기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었으나 최근에는 서핑에 비해 월등하게 빠르고 현란한 점핑이 가능한 카이트 서핑(Kite Surfing)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서프보드(Surf Board)에 워트제트 엔진을 장착한 속칭 파워스키 제트보드(Powerski Jetboards)도 등장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레저활동과 만족도, 레저활동 실태, 레저활동 제약요인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훈(1991)에 따르면 레저활동은 즐거움이라는 경험을 전제로 자유시간에 수행되고, 자발적인 비업무활동으로 정의한다. 그간 많은 연구자는 레저활동에 대한 나름의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레저활동이 상호 유사한 내면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레저만족 혹은 여가만족은 레저활동을 선택 및 참가를 규정하고 그 활동의 지속과 흥미를 결정하는 중요요소임을 제시하고 있다. 여가 만족의 척도를 개발한 Regheb(1980)는 레저활동의 선택과 참여의 결과로서 개인이 형성하거나, 유도하거나, 획득하는 궁극적인 인식 또는 감정을 여가만족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즉 개인의 기대와 충족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주관적인 감정을 만족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종길(1992)은 여가만족도를 일반적인 레저 경험이나 상황에 대해 현재 즐겁거나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가의 만족스러운 감정은 개인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욕구가 충족됨으로써 야기된다고 한다.

레저활동에 관한 많은 연구자는 레저활동의 유형과 여가만족도의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먼저 Regheb와 Griffith(1982)는 스포츠 활동과 야외활동이 사회활동, 문화활동, 독서, TV시청에 비해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임변장 외(1995)는 레저활동의 유형별로 여가만족도의 하위요인 즉,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생리적, 휴식적 요인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스포츠 활동이 다른 레저활동보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영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한다. 또한 원형중(1995)은 스포츠의 참여가 여가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많은 레저관련 연구자들의 주된 또 다른 관심분야는 레저활동에서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이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계층, 성별, 연령, 지역, 인종에 따른 여가 불평등에 관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Clark(1956)은 여가활동의 계층 또는 계급 불평등과 관련하여 연구를 했다. 즉 최상류층이 예술감상, 브리지게임, 독서 등과 같이 즐기기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활동에 참여하는 반면에 최하류층은 TV시청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Bammel(1982)의 경우에는 시간과 사회계층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계층이 낮

을 수록 시간이지향이 더욱 즉각적이라고 밝히고 있어 Clark의 연구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연구자의 경우 홍성숙(1992)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먼저 건강증진을 이유로 레저활동을 즐긴다는 사람들의 비중이 하류층에 비해 18.5%가량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활동에 대한 불만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시간이나 비용의 부족이 아닌, 시설과 장소가 부족하다는 응답비율이 하류층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연구한 연구자들은 주로 가정주부의 여가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경미와 황덕순(1990)은 취학기 자녀를 둔 전업주부에 대한 연구에서 주부의 여가는 자녀 수와 가족 수가 많은 수록, 그리고 자녀의 연령이 적고, 교육수준이 낮고, 연령이 적을 수록 줄어드는 특징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연령에 따른 불평등과 관련된 연구들은 최근 노인들의 여가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준다.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노년기 삶과 그 여가활용에 대한 적극적 관심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려된다. 허준수(2002)는 노인의 여가활동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환경에 대한 통제와 능력을 증진시켜 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수로 경제적 상태와 건강이 지적된다. 장인협과 최성재(2002)는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 경제적 이유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외에 도시와 농촌 간의 여가불평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연구와 미국에서의 인종에 따른 여가활동의 차이 등이 레저관련 연구들의 주된 흐름이 되고 있다. 한편, 윤인진·김상운(2005)은, 여가활동의 사회집단별 차이와 불평등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에서는 아직 적극적, 활동적, 자기개발적 여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점, 여가활동의 시간과 내용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고, 노인층과 청소년층의 여가활동의 내용과 질이 타 연령층에 비해 더욱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불평등에 있어서 농촌지역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였으며, 사회계층에 따라서 레저활동의 유형과 소요시간, 소요비용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레저와 관련 초기의 연구들은 노동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극적이며,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레저활동 관련 연구들은 레저활동이 가져다주는 편익을 제대로 규명하고, 국가단위나 지역단위의 공급을 확대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레저활동의 제약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도 함께 규명하고 있다.

한편 함도웅(2005)은 해양레저스포츠 정책운영의 효율성에 관하여 연구하면서 해양레저정책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해양레저 프로그램의 문제, 전문인력의 양성문제, 법

제적 측면, 정책추진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경우 해양레저 관련 정책의 추진이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구조적 모순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로 분화되어 있는 태생적 한계에 기인한 것임을 주장한다. 해양수산부의 정책담당자들은 예산의 분배에 있어 여가활성화 보다는 항만의 정비, 수산업 수입증대에만 몰입할 뿐 해양레저의 개발이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지닌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경우도 체육을 주관하는 부처이지만 해양스포츠의 발전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이준희·최정도(2003)는 해양레저 스포츠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연구에서 시설의 수와 질, 보유장비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수상레저 안전법의 제정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에 따른 관련 법규의 미비, 등록절차의 문제 등을 지적한다. 또한 일부 해양레저 기구들의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과소비 분야로 평가하는 등 인식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해양리조트의 개발, 적극적 PR, 해양레저 스포츠의 환경 및 관련 산업육성 그리고 안전확보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안전확보의 문제에 있어서 해양활동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과감하게 조정, 통합하여 일관성 있게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경률(2001)은 한국 해양레저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논문에서 한국해양레저 활동의 저해요인으로 고비용의 문제, 시설부족, 사회적 인식부족, 시간적·공간적 제약, 전문인력의 문제, 정부지원부족, 부적절한 규제, 안전의식의 결여를 주된 장애요인으로 지적하였으며, 이중 고비용의 문제, 시설부족, 정부지원의 부족과 규제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장애요인이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제시한 정책제언은 시설의 확충, 이용요금과 장비의 저렴화, 정부지원의 확대와 규제개선, 적절한 홍보 및 문화의 변화, 전문인력의 양성과 적절한 대우, 프로그램의 확충을 제안하고 있다.

Ⅲ. 해양레저 활동의 가설검증 및 분석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이론적 연구는 국내·외의 관련 서적을 검토하고, 교과서, 선행연구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모형을 정립하고, 실증적 연구는 전문적인 정기간행물, 해양레저에 관련된 논집, 전문 학회지의 내용분석과 설문지 조사 분석을 보완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지를 작성하기 이전에 해양경찰청 관계자, 해양레저 관련 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수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해양레저활동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설문지는 일반국민, 해양레저 관련 공무원, 해양레저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일반국민은 총 1450부를 배포하여 1376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364부를 분석의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공무원과 해양레저 관련 종사자의 경우에는 총 1000부를 배포하여 900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832부를 분석의 대상으로 활용했다. 설회수된 설문지는 SPSS/P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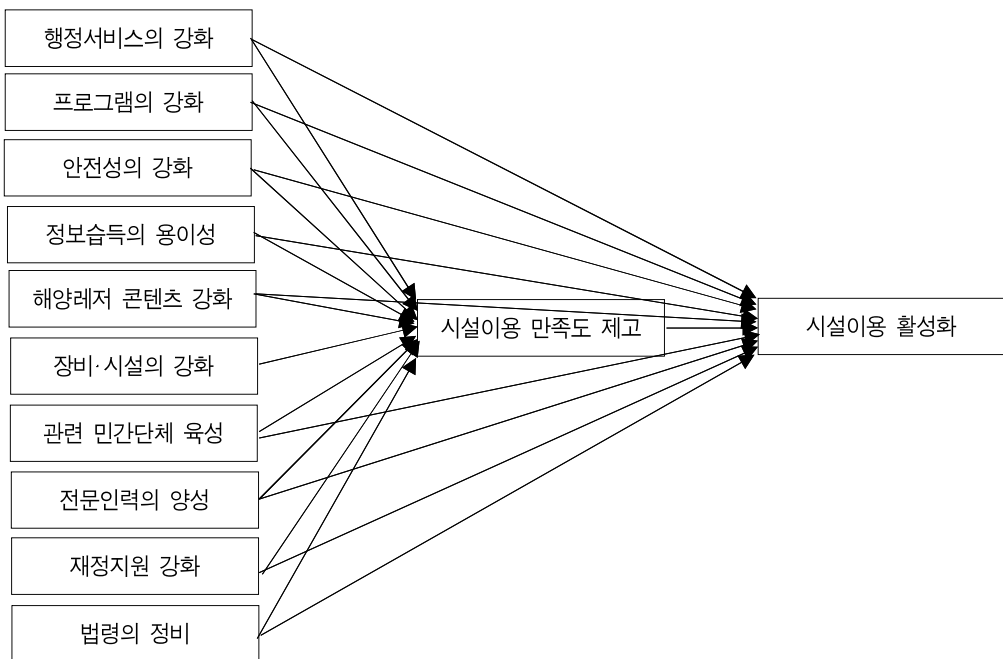
2. 연구가설 및 분석틀

해양레저산업 종사자와 해양경찰청 공무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레저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한 10가지 대안을 제시하였고 그 대안들이 해양레저시설 이용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1. 행정서비스의 강화는 해양레저시설 이용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 가설 1-2. 해양레저 관련 재정지원은 해양레저시설 이용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 가설 1-3. 해양레저 관련 법령의 정비는 해양레저시설 이용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 가설 1-4. 해양레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은 해양레저시설 이용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 가설 1-5. 프로그램의 다양화는 해양레저시설 이용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 가설 1-6. 해양문화콘텐츠 강화는 해양레저시설 이용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 가설 1-7. 해양레저활동 관련 장비 및 시설의 강화는 해양레저시설 이용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 가설 1-8. 해양레저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은 해양레저시설 이용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 가설 1-9. 해양레저 활동의 안전성 강화는 해양레저시설 이용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 가설 1-10. 해양레저 활동 관련 정보습득의 용이성은 해양레저시설 이용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
- 가설 2-1. 행정서비스의 강화는 해양레저시설 이용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
 - 가설 2-2. 해양레저 관련 재정지원은 해양레저시설 이용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
 - 가설 2-3. 해양레저 관련 법령의 정비는 해양레저시설 이용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
 - 가설 2-4. 해양레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은 해양레저시설 이용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
 - 가설 2-5. 프로그램의 다양화는 해양레저시설 이용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
 - 가설 2-6. 해양문화콘텐츠 강화는 해양레저시설 이용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
 - 가설 2-7. 해양레저활동 관련 장비 및 시설의 강화는 해양레저시설 이용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
 - 가설 2-8. 해양레저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은 해양레저시설 이용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
 - 가설 2-9. 해양레저 활동의 안전성 강화는 해양레저시설 이용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
 - 가설 2-10. 해양레저 활동 관련 정보습득의 용이성은 해양레저시설 이용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해양레저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제시된 10가지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시설이용의 활성화를 종속변수로 하는 가설적 관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회귀분석의 결과에서 제시된 시설이용의 만족도 변인을 제시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을 위한 분석틀은 크게 2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며, 분석틀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조모형



종속변수인 해양레저 시설이용 활성화 이외에 독립변수로 행정서비스 강화, 프로그램의 강화, 안전성의 확보, 정보습득의 용이성, 해양레저 콘텐츠 강화, 장비시설의 확충 및 강화,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 전문인력의 양성, 재정지원, 법령정비를 설정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독립변수 상호간에 일정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일련의 가설을 세웠다. 독립변수 상호간의 가설모형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1>의 화살표는 각 변수 상호간 영향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해양레저시설 이용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을 확인하고, 그 영향력의 크기와 경로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3. 기초 인과모형의 분석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그림 1>의 가설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잠재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구조모델(structural model)과 잠재변수와 이를 측정하는 지표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측정모델(measurement model)로 구성된다. 입력자료는 상관행렬을 사용하였으며, 모수의 추정에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을 사용하였다. ML추정법은 정규성 가정 하에서 불편성, 일치성, 최소분산성, 정규 분포성을 가지는 추정량을 제공한다. 분석된 제안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경로의 통계적 유의비율을 살펴보게 된다. 그러나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사용되는 적합도 지수의 종류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 적합도 지수로 사용되는 것은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하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measures), 제안모형과 수정모형의 비교를 통해 모형의 개선정도를 평가하는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measures), 그리고 수정모형의 적합수준을 평가하는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measures)로 구분된다. 상기 제시된 제안모형을 ML추정법을 통해 분석한 절대적합지수의 산출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기초모형의 모형적합도

비교기준		수용기준	제안모형	
적합도	절대적합지수	$X^2(df)$	-	4251.477(46)
		p-value	$p > 0.05$	0.000
		적합지수(GFI)	≥ 0.9	0.376
		조정적합지수(AGFI)	≥ 0.9	0.115
		평균오차제공근(RMR)	≤ 0.05	0.412
경로의 통계적 유의비율		% (유의/전체)	(33.3) 7/21	

6개의 지수를 통해 가설적 인과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한 결과 본 연구의 가설적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X^2(df)$ 를 제외한 조정적합지수(AGFI), 평균오차 제공근(RMR), p-value의 지수가 수용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제안모형에서 제시한 연구가설 21개 중에서 7개만이 유의수준 0.05이하, t값 1.96이상의 기준에서 채택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제안모형 경로의 통계적 유의도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기초모형의 추정결과

구 분	추정치	표준오차	t값	유의수준
행정서비스강화→시설만족도	0.201	0.018	11.396	0.000
해양레저 콘텐츠 강화→시설만족도	0.073	0.018	4.053	0.000
프로그램 강화 →시설만족도	-0.006	0.019	-0.340	0.734
안전성 강화 →시설만족도	-0.026	0.018	-1.414	0.157
정보습득의 용이성 →시설만족도	-0.008	0.008	-0.958	0.338
장비시설의 강화 →시설만족도	0.031	0.018	1.768	0.077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 →시설만족도	0.008	0.017	0.493	0.622
전문인력 양성 →시설만족도	0.009	0.017	0.568	0.570
재정지원 강화 →시설만족도	-0.015	0.017	-0.862	0.388
법령정비 →시설만족도	-0.020	0.016	-1.244	0.214
시설만족도 →시설이용 활성화	0.509	0.032	15.669	0.000
프로그램 강화 →시설이용활성화	0.075	0.018	4.245	0.000
행정서비스강화→시설이용활성화	-0.008	0.018	-0.430	0.667
안전성 강화 →시설이용활성화	-0.058	0.017	-3.327	0.001
정보습득의 용이성 →시설이용활성화	-0.007	0.008	-0.907	0.365
장비시설의 강화 →시설이용활성화	0.037	0.017	-2.170	0.030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 →시설이용활성화	-0.018	0.016	-1.098	0.272
전문인력 양성 →시설이용 활성화	0.035	0.016	2.240	0.025
재정지원 강화 →시설이용 활성화	0.029	0.016	1.805	0.071
법령정비 →시설이용 활성화	-0.010	0.015	-0.627	0.531
해양레저 콘텐츠 강화→시설이용활성화	-0.035	0.026	-1.351	0.177

기초모형 경로의 통계적 유의도를 살펴본 결과, 제시된 21개의 가설적 인과관계 중에서 7개의 인과관계만이 채택되고 14개의 가설은 기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행정서비스의 강화, 해양레저 콘텐츠의 강화가 해양레저시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만이 유의수준 0.05, t값 1.96 이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의 강화, 안전성 강화, 장비시설의 강화 및 확충,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설이용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만이 유의수준 0.05, t값 1.96 이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시설이용의 만족도는 시설이용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도 채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하여 기각된 경로를 제거하고 AMOS 프로그램이 제시한 수정지수를 반영하여 2차례에 걸친 수정을 거쳐 최적모형을 제시하였다.

4. 수정모형 분석 및 최적모형 도출

수정모형의 적합도 검토에 있어서는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하는 절대적합지수 (absolute fit measures), 제안모형과 수정모형의 비교를 통해 모형의 개선정도를 평가하는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measures), 그리고 수정모형의 적합수준을 평가하는 간명적합지수 (parsimonious fit measures)로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2 차례의 수정을 거쳐 최적모형을 도출하였다. 그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수정모형의 적합도

		비교기준	수용기준	기초모형	수정모형
적 합 도	절대 적합 지수	χ^2 (df)	-	4251.477(46)	14.037(20)
		p-value	p>0.05	0.000	0.829
		적합지수(GFI)	>=0.9	0.376	0.997
		평균오차제곱근(RMR)	<=0.05	0.412	0.015
		조정적합지수(AGFI)	>=0.9	0.115	0.989
	증분 적합 지수	표준적합지수(NFI)	>=0.9	0.083	0.997
		비교적합지수(CFI)	최대값	0.082	1.000
	간명 적합 지수	아카이계 정보기준(AIC)	최소값	4297.477	130.037
		간명적합지수(PGFI)	>=0.9	0.265	0.256
		간명표준적합지수(PNFI)	>=0.9	0.070	0.302
		근사평균오차제곱근(RMSEA)	<=0.05	0.303	0.000
	경로의 통계적 유의비율			% (유의/전체)	(33.3) 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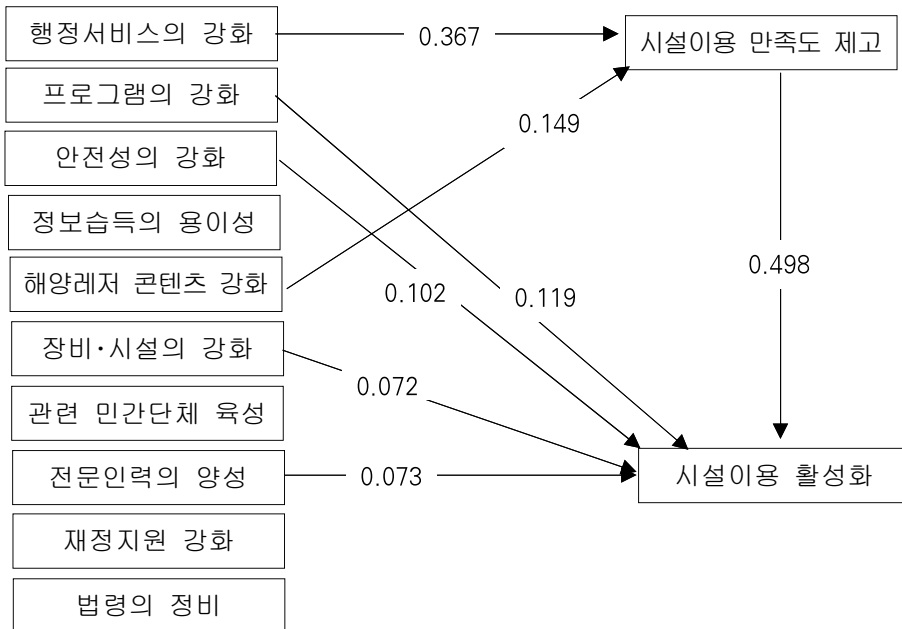
최종 수정모형의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를 총체적으로 고려한 결과, 12개의 측정지표 중 10개의 지표가 적합하게 분석되어 수정모형의 적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해양레저시설 이용활성화에 관한 경로구조를 분석해 보면, 행정서비스의 강화가 시설이용 만족도에 0.367(0.000)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해양레저 콘텐츠 강화가 시설이용 만족도에 0.149(0.000)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전성의 강화는 시설이용 활성화에 0.102(0.030)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장비 및 시설의 확충 및 전문인력의 양성이 각각 0.072, 0.073만큼 시설이용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분석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최적모형의 추정결과

구 분	추정치	표준추정치	표준오차	t값	유의수준
행정서비스 강화 → 시설만족도	0.203	0.367	0.018	11.507	0.000
해양레저 콘텐츠 강화 → 시설만족도	0.085	0.149	0.018	4.690	0.000
시설만족도 → 시설이용활성화	0.505	0.498	0.030	16.653	0.000
프로그램의 강화→시설이용 활성화	0.071	0.119	0.024	2.912	0.004
안전성의 강화→시설이용 활성화	0.060	0.102	0.028	2.166	0.030
장비시설의 강화→시설이용 활성화	0.041	0.072	0.024	1.987	0.041
전문인력 강화→시설이용 활성화	0.039	0.073	0.020	1.963	0.050

본 논문에서 제시한 최종모형의 추정치를 검토한 결과 수정모형에서 제시된 7개의 가설이 모두 채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에 따른 해양레저 활성화 영향구조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해양레저 활성화 영향구조모형



주: 모든 추정치는 유의수준 0.05에서 채택됨.

해양레저 시설이용활성화의 영향구조를 분석한 결과, 시설이용 활성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프로그램의 강화, 안전성 강화, 장비시설의 강화, 전문인력의 양성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행정서비스 강화와 해양레저 콘텐츠 강화는 시설이용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시설이용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설이용 활성화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프로그램 강화가 안전성 강화, 전문인력 양성, 장비시설의 강화에 비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정보습득의 용이성,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 재정지원 강화, 법령의 정비 변인의 경우에는 시설이용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해양레저시설 이용활성화 영향요인들의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종속 변수	전체 효과
독립변수	효과	매개변수	효과	총계		
행정서비스 강화	-	→시설만족도→	0.183	0.183	시설 이용 활성화	0.183
프로그램 강화	0.119	-	-	-		0.119
안전성 강화	0.102	-	-	-		0.102
해양레저 콘텐츠 강화	-	→시설만족도→	0.074	0.074		0.074
장비시설의 강화	0.072	-	-	-		0.072
전문인력의 양성	0.073	-	-	-		0.073
시설이용 만족도	0.498	-	-	-		0.498

<그림 2>의 구조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경로간의 영향력은 각 잠재변수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경로분석에 있어서 간접효과(indirect effect)는 독립변수의 효과가 하나이상의 중간변수에 의해서 매개되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나타낸다. 따라서 각 잠재변수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직·간접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표 8>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앞서 제기한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해양레저시설 이용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경로를 파악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면 <표 9>와 같다.

본 연구의 분석들에서는 해양레저시설 이용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20개의 경로를 통해 영향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그러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결과 6개의 가설이 채택되었고, 나머지 14개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표 9〉 가설의 검증

가설	검증
가설 1-1. 행정서비스의 강화는 해양레저시설 이용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채택
가설 1-2. 프로그램의 다양화는 해양레저시설 이용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기각
가설 1-3. 해양레저 활동의 안전성 강화는 해양레저시설 이용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기각
가설 1-4. 해양레저 활동 관련 정보습득의 용이성은 해양레저시설 이용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기각
가설 1-5. 해양문화콘텐츠 강화는 해양레저시설 이용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채택
가설 1-6. 해양레저활동 관련 장비 및 시설의 강화는 해양레저시설 이용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기각
가설 1-7. 해양레저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은 해양레저시설 이용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기각
가설 1-8. 해양레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은 해양레저시설 이용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기각
가설 1-9. 해양레저 관련 재정지원은 해양레저시설 이용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기각
가설 1-10. 해양레저 관련 법령의 정비는 해양레저시설 이용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기각
가설 2-1. 행정서비스의 강화는 해양레저시설 이용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	기각
가설 2-2. 프로그램의 다양화는 해양레저시설 이용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	채택
가설 2-3. 해양레저 활동의 안전성 강화는 해양레저시설 이용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	채택
가설 2-4. 해양레저 활동 관련 정보습득의 용이성은 해양레저시설 이용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	기각
가설 2-5. 해양문화콘텐츠 강화는 해양레저시설 이용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	기각
가설 2-6. 해양레저활동 관련 장비 및 시설의 강화는 해양레저시설 이용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	채택
가설 2-7. 해양레저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은 해양레저시설 이용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	기각
가설 2-8. 해양레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은 해양레저시설 이용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	채택
가설 2-9. 해양레저 관련 재정지원은 해양레저시설 이용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	기각
가설 2-10. 해양레저 관련 법령의 정비는 해양레저시설 이용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	기각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시설이용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 일련의 가설을 세우고 검증의 과정을 거쳤다. 분석의 결과, 해양레저 시설의 수와 이용 교통수단의 만족도는 시설이용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이 두 가지 변수는 해양레저시설의 이용 활성화에 직접적인 기여도는 미약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반면에 해양레저시설에 대한 만족도 향상, 이용요금 및 숙박시설에 대한 만족도 제고의 노력은 시설이용 활성화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도출된 해양레저 활동의 개선방안들과 시설이용활성화의 가설적 관계들을 검토했다. 제시된 10개의 개선방안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의 결과 해양레저 프로그램의 강화가 해양레저 활동의 활성화에 가장 큰 기

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정서비스 강화와 해양레저 콘텐츠 강화는 시설이용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시설이용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 정보제공의 용이성 확보, 법령의 정비, 재정지원의 강화는 시설이용 활성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분석되었다.

해양레저 수요의 증가는 해양레저 시설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쉽게 예상된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여가에 대한 재인식, 주 5일 근무제의 정착과 같은 사회환경적 변인들이 해양레저 활동의 활성화와 레저산업의 발전이라는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었다고 단언적으로 논급할 수는 없다. 해양레저 시설뿐만 아니라 숙박시설, 이용요금, 교통 등의 모든 조사항목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프로그램 만족도,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모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의 결과를 통해 해양레저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양레저 관련 프로그램의 강화, 안전성 강화, 전문인력 양성, 장비시설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이미 언급했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환경적 변화들은 해양레저 활동, 산업에 기회요인이 됨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이를 강화하는 해양레저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경로분석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해양레저활동 프로그램의 강화가 해양레저 시설의 이용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이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해양레저 프로그램들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일회성의 단순화된 프로그램으로는 이용객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에서는 어촌에 남아 있는 해양문화 사료 및 유적들을 정리하여 필요한 부분은 보존하고 관광상품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해양레저 활동의 안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해양레저는 바다를 무대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특히 바다낚시의 경우에는 활동의 성격상 안전문제에 취약하기 때문에 우선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강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수욕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모터보트 등 해양 스포츠객과 해수욕객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활동간 구분·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인프라의 정비 및 강화가 필요하다. 해양레저 시설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낚시객들을 위한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등 환경관련 시설과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의 정비 및 민박시설의 고급화 유도도 필요하다. 특히 문화복지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법률 및 제도의 정비가 절실하다.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법적 장애요인은 현실과 규정의 괴리문제, 이권에 따른 분쟁조정기능의 부재, 법의 흠결, 자치규약의 미흡이라는 문제가 언

급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양 레저활동에 대하여 각 법률마다 안전관리체계 등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 것을 일원화, 체계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참고문헌

- 김경률. (2001). 한국 해양레저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한국체육학회」.
- 서태양. (1995). 「여가론」. 서울: 대왕사.
- 이상춘·여호근·최나리. (2004). 「해양관광의 이해」. 서울: 백산출판사.
- 이수호. (2001).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체육학과 학술발표회.
- 이준희·최정도. (2003). 해양레저스포츠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스포츠리서치」, 14(2): 425-436.
- 이종길. (1992). 사회체육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 이종훈. (1999). 일본의 해중공원 개발사례 소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 훈. (2001). 주5일 근무제가 레저라이프스타일과 관광사업에 미치는 영향연구, 「관광연구논총」, 13: 31-57.
- 원형중. (1995). 청소년의 중독성 물질남용, 여가참여, 여가권태, 여가만족의 인과모형 설정을 위한 연구, 「여가레크레이션 연구」, 12(1): 46-58.
- 윤인진·김상운. (2005). 여가활동의 사회집단별 차이와 불평등, 「사회과학연구」, 13(2): 162-202.
- 장인협·최성재. (2002).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한경미·황덕순. (1990). 주부의 여가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69-82.
- 함도웅. (2005).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공청회 참가보고서
- 허준수. (2002). 도시노인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연구」, 22(2).
- 홍성숙. (1992). 계층별 세대별로 본 여가의식 일고찰, 「대신대학논문집」, 12: 23-47.
- A. Clark. (1956). The Use of Leisure and its Relation to Levels of Occupational Presti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1(3).
- G. Bammel, and L. L. Bammel. (1982). Leisure and Human Behavior, Iowa: W.C.B. Company Publishers.
- Ragheb, M. G. (1980). Interrelationships among leisure participation leisure satisfaction and leisure attitud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2) : 138-149.
- Ragheb, M. G. & Charles A, Griffith. (1982). The Contribution of Leisure Particip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to Life Satisfaction of Older Perso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4(4) : 295-306.

ABSTRACT

A Study on Marine Leisure Activities

Jong Youl Lee & Su Hoon Kim

This study was considered the strategy of marine leisure activity in Korea. The study surveyed the literature, documents and records, and interviewed experts related to marine leisure activities to determine the actual conditions and pending questions of marine leisure activities. The reality of marine leisure activities was found to be still very low-intensive, and lacking stability of demand, and showed lower participation by large enterprises. The research also discusses several ways to promote marine leisure activities, including (1) the development of various leisure programs, (2) safety improvement for marine leisure effectives, (3) government investment in marine leisure business, and (4) legislative efforts to build fundamental laws related to marine leisure/sports and to overhaul safety-related regulations for marine activities.

【Key Words: marine leisure, leisure programs, leisure activities】